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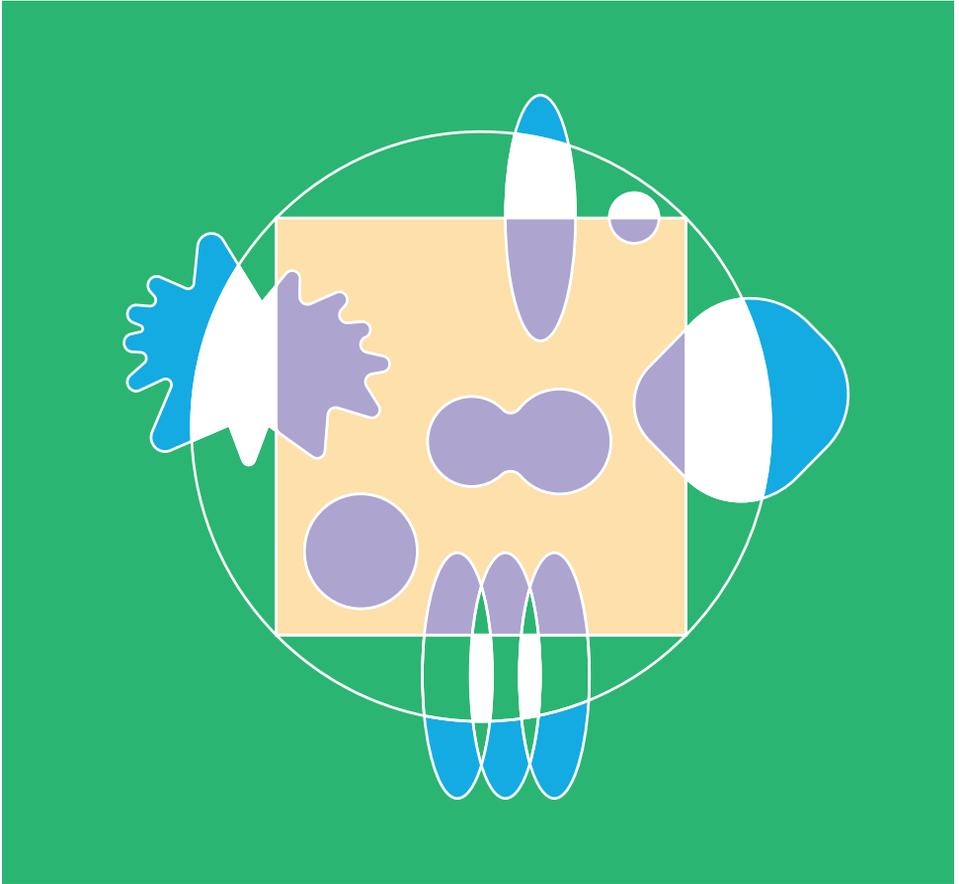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현장의 기록

활력향연

06

: 코로나 이전부터 미미한 존재들로 인식되어온 우리들의 이야기

_조경미





조경미

조경미 _ s-education202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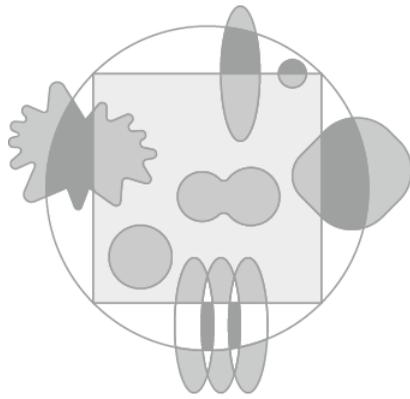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이자, 세 아이를 둔 엄마이다. 아이셋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서 그중 쌍둥이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남들과 다른 장애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동시에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나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 많고, 자유롭고 싶은 꿈 많은 사람이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통합교육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할까?를 주요하게 고민하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경쟁교육, 비장애중심교육이 아닌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지금과는 다른 대안교육에 관심이 많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이전부터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나와 아이들의 온라인 개학 경험	1
1부	코로나19 시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7
	•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과 학교, 왜 온라인 개학일까?	9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도 온라인 개학에 반대하는 부모들, 왜 그랬을까?	11
2부	특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만남	19
	•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21
	• 온라인 교육이란 무엇인가?	26
	• 특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관한 연구	28
3부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를 만나다.	31
	• 내가 만난 아이와 엄마	33
	• 온라인 교육 경험을 말하다	37
	• 통합학급 수업을 말하다	42
	•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말하다	46
	• 적합한 교육지원 방법을 말하다	52
4부	온라인교육,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	57
	• 맺음말_온라인 교육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	59
	• 미미한 존재에서 중요한 존재로!	61
◆	에필로그	67
◆	참고문헌	68

들어가며

이전부터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나와 아이들의 온라인 개학 경험



코로나19, 온라인 개학현장의 기록

들어가며

이전부터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나와 아이들의 온라인 개학 경험

2020년은 쌍둥이가 4학년이 된 해이다. 나는 2020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3월 2일 학교 개학이 연기되었다. 온 사회가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했고, 그렇게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다. 온라인 개학답게 개학은 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그해 1학기를 지나 추석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집에 있었다.

온라인 개학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업 유지를 위해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 장애학생에게는 또 다른 벽이 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험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졌지만, 그것은 철저히 부모의 몫이었다. 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란 공간에서 철저하게 투명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는 분명 장애학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있지만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장애학생은 학교 e-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물론 그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교사도 있다. 그런 경우 그것은 고스란히 엄마의 과제가 된다) 특수교사가 주는 학습 꾸러미¹⁾를 하고, 사진 찍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더군다나 우리 집은 맞벌이 가구였기에 우리 아이들은 평일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엄마가 퇴근 후 혹은 주말에 몰아서 학습꾸러미를 해야 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우려해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지만, 그 학생 속에 장애학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일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공백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의 진행으로 나를 비롯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24시간 집에서 아이 돌봄, 가사노동, 아이 교육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부모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그 기간은 고립감과 무력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정말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

작년부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 교육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아니라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부에 등교수업을 요구했다.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크게 좌절했다. 또한 긴급돌봄 등 일반학교에서 이뤄지는 지원서비스에서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당연한 요구를 지금껏 계속 하고 있다.

1) 학습꾸러미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교사가 학생들이 집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학습 활동지, 교구 등이 1, 2주 분량으로 오는 것을 학습꾸러미라고 한다.

나를 비롯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면서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사에 따라 학교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교육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걸까? 아이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흔히 ‘좋은 교사’를 만난 것이 복권 당첨으로 여기는 황재가 아니라 동등한 교육의 질을 보장받는 건 어려울까? 언제까지 운에 기대어야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을 우리가 운이 없음을 탓해야 하는 것일까(복권 당첨 확률이 희박하듯, 좋은 교사는 분명 있지만 그분을 내 아이가 만난다는 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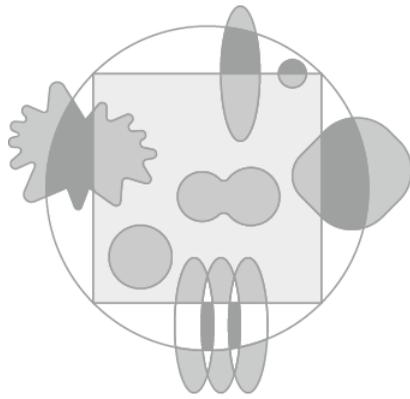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온라인 개학 현장에 관한 기록 그 자체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온라인 교육 전환은 전례가 없는 경험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5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온라인 개학 이후 이들이 경험한 교육 차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을 통해 온라인 개학이 과연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지원이었는지를 짚어 보고 싶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온라인 교육이 발달 장애학생에게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재난의 시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공간 변화의 문제를 떠나서 교육의 방향을 다시 물음으로써 장애학생들도 적절한 지원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와 의미를 찾는 과제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각 사람의 특성이 다르듯 장애학생들도 자신만의 특성이 있다. 컴퓨터 화면 너머 영상으로 수업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실제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 나와 내가 만난 부모님들의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부모의 엄청난 학구열 때문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아이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거창한 연구란 이름을 달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고 싶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나는 이런 다짐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임한다.

코로나19 시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코로나19, 온라인 개학현장의 기록

코로나19 시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여기에서는 코로나19와 함께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게 된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공백 해소를 위해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는 개별적 교육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된 온라인 개학이 야기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과 학교, 왜 온라인 개학일까?

2020년 초 우리를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학교를 멈춰 세웠다. 3월 2일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를 발표하였다.²⁾ 이러한 1차 휴업명령 이후에도 2차, 3차, 4차에 걸친 휴업명령이 계속 이어졌다.

2) 교육부 보도자료(2020.02.23.), (2020.03.31.)

휴업 명령				단계적 온라인 개학
1차	2차	3차	4차	
3. 2.~3. 6.(5일)	3. 9.~3. 20.(10일)	3. 23.~4. 3.(10일)	4. 6.~4. 8.(3일)	4.9. ~

휴업에 이어 4월을 앞두고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확산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4월 6일 이후 학년별 휴업 기간을 거쳐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게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었다.

학 년	4. 6.~8.	4. 9.~10.	4. 13.~15.	4. 16.~17.	4.20.~
고	3	휴업(3일)	적응 기간	온라인 개학(4. 9.~)	
	1, 2	휴업(7일)		적응 기간	온라인 개학 (4. 16.~)
중	3	휴업(3일)	적응 기간	온라인 개학(4. 9.~)	
	1, 2	휴업(7일)		적응 기간	온라인 개학 (4. 16.~)
초	4-6	휴업(7일)		적응 기간	온라인 개학 (4. 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 (4. 20.~)

위 표에처럼 4월 9일(목)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일주일 후인 4월 16일(목)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월)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되었다.

2.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도 온라인 개학에 반대하는 부모들, 왜 그랬을까?

3월 2일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할 무렵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 학령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학령기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3,86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부모 75.8%는 온라인 수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격(온라인) 수업 동의 여부

(단위: 명, %)

동의 여부	빈도	비율
동의한다	937	24.2
동의하지 않는다	2,930	75.8

순회교육³⁾

(단위: 명, %)

순회교육	빈도	비율
1:1 가정방문 순회교육	644	16.7
소규모 그룹(2~4인)으로 특정 장소(현장학습 등)에서 순회교육	1,930	49.9
순회교육을 동의하지 않는다	1,293	33.4

교육 대안

(단위: 명, %)

교육 대안	빈도	비율
한 학급을 소규모(2~4인)로 오전반, 오후반 교차로 등교 수업	866	22.4
한 학급을 소규모(2~4인)로 요일별 교차로 등교 수업	1,119	28.9
긴급돌봄교실(특수교육인력 배치) 확대 및 수업일수 인정	348	9.0
교육바우처를 지원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부모 등이 교육 지원	333	8.6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수업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진행	519	13.4
개학 연기	682	17.6

3) 장애아 교육 교원 및 장애아 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등에 있는 장애아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교육.

한 달이라는 개학 연기 기간에 학부모들은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 직감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반대한 것일까?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알기에 소규모 등교를 원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은 아닐까? 아쉽게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교 수업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이해하기 쉬운 용어 설명

- ① **학습꾸러미:**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준비한 요일별 수행과제, 준비물 등을 지칭한다. 학교마다, 교사마다 학습꾸러미 내용과 구성은 천차만별이다.



- ② **순회교육:** 교원이나 장애아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애아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기존 순회교육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혹은 특정 장소에서 진행하는 순회교육을 제안하였다.

예) 집으로 1:1 방문, 특정장소로 1:3 소규모 순회교육

- ③ **교육바우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예) 전라남도의 경우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게 연간 3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한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바우처로 취학 전 아동의 학습 능력과 잠재력 향상을 위한 도서, 창의력 교구, 장난감, 학습지 등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살 수 있다.



- ④ **교차 등교**: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개학을 함으로써 학교는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밀집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등교하는 방법이다.

예)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인 경우, 오전반 3명, 오후반 3명

- ⑤ **개별화교육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서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방식을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개별화지원팀 구성이나 개별화교육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1년 새 학기 대비 부모 대상으로 학사운영 의견 수렴 링크 화면>

안녕하십니까?
현재 2021학년도 새학기 대비 특수학급 아동의 비등교일 학사운영에 관련하여 설문드립니다.
더 나은 수업의 질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설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3. 4. 인천장서초 특수학급

☆ 0000

회신 기한 : 즉시 - 무기한

분항1. 필수

특수학급 학생의 비등교일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받기 원하십니까?

- 1. 통합학급과 동일하게 비등교(가정에서 원격수업 참여)
- 2. 특수학급에서 2시간(국어, 수학) 등교수업 후 학교----
--> 2번 문항으로 가세요.
- 3. 특수학급에서 2시간(국어, 수학) 등교수업 후 긴급돌봄 참여
- 4.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전일제 등교수업 및 급식 후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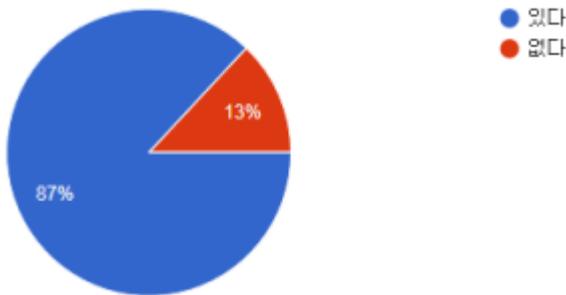
[참고자료]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건강과 생활은 어떠했는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을 활용하여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585명이 참여하였다.

○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의 휴교·휴관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 변화**

▶ 설문조사 응답자 중 87%가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생활 패턴 변화를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각 영역에서 '매우 잘한다'를 10점으로, '매우 심각하다'를 1점으로 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외부 활동 4.56점, 에너지 발산과 조절 4.16점, 수면 2.23점, 식사 1.49점, 의사소통 1.36점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의 휴교·휴관을 결정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물리적 거리두기)로 외출 자제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지내게 되어, 그 결과 기존의 생활 루틴(routine)이 깨지고 생활 패턴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1] 코로나19 시기 이후 생활 패턴의 변화 유무



[표 2] 코로나19 시기 이후 생활 패턴의 세부 영역별 변화 정도

	수면	식사	화장실 가기 (소변)	화장실 가기 (대변)	일상생 활기술 (자조기술)	외부 활동	에너지 발산 및 조절	의사 소통
코로나19 이전	6.97	7.48	7.43	7.03	6.27	7.45	7.13	5.85
이후	4.74	5.99	6.74	6.13	5.46	2.89	2.97	4.49
변화 정도	-2.23	-1.49	-0.69	-0.90	-0.81	-4.56	-4.16	-1.36

○ 고립된 환경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 ▶ 현재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심하다’를 10점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를 1점으로 하고 설문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과 부모는 각각 평균 7.23점, 7.9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보다 부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코로나19 시기 이후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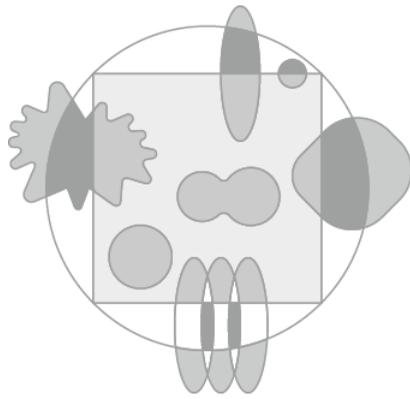
	스트레스 정도
발달장애인	7.23
부모	7.93

정도와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87.8%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도전적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도 ‘지속적인 지원·돌봄으로 피곤하다’가 73.7%,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가 48.2%, ‘수면이 불안정하고 멍할 때가 있다’가 46.7%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자녀 지원·돌봄으로 오는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가장 시급한 지원**

- ▶ 현재 가장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지원(중복 선택)에서는 ‘방역된 안전한 장소에서 개별 및 소수 교육·돌봄 지원’이 42.2%, ‘경제적 지원’이 41.9%,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는 27.1%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공(43.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만남



코로나19, 온라인 개학현장의 기록

특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만남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특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만나게 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코로나19 시기임에도 온라인 교육이 포괄하지 못했던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고민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수교육’, ‘온라인 교육’이란 용어가 지닌 의미를 짚어본다. 또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교육이란 무엇이고, 장애학생으로도 불리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헌법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학생 역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교육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 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교육이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1항 정의에서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 정의에서 등장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또 무엇인가?

1) 특수교육대상자란 누구인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3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동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다. 장애학생 중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6. 2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②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③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④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⑤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⑥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⑦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⑧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⑨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⑩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2)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내용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목표로, 어떤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하고 어떤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교육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의 차이라고 한다. 자신의 생활연령에 비해 정신연령이 낮다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생활연령과 정신연령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이미숙, 2016).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무엇인가?

특수교육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관련서비스는 장애학생의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온라인 교육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이후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이란 용어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온라인 교육이란 무엇일까? 과거에는 전통적인 현장 대면교육 방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비대면의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라고 표현한다. 온라인 교육은 현장 대면교육과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매체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동시성, 비동시성 원격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김현수·최형림·김선희, 1999). 교육부에서 현재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⁴⁾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 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

- 본 기준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의

❖ 원격수업의 운영형태는 4가지이다.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4) 교육부 보도자료(2020.03.2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구 분	운영 형태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웨스,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 (예시) EBS 강자,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④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각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생의 수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특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관한 연구

최근의 연구(박성영, 2020; 이동주·Misook Kim, 2020)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감염병 노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과 온라인 수업에서는 영상매체 등의 다양한 매개 도구를 활용한 과업 중심의 수업과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학습자에게 보다 많은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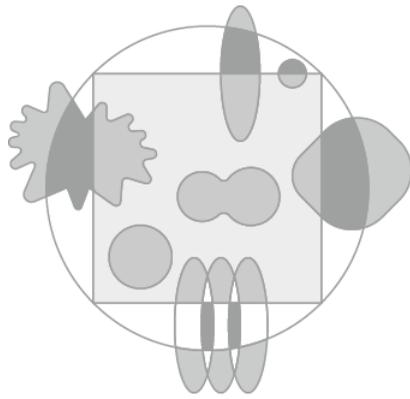
반면에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예, 개인용컴퓨터, 학습관리시스템, 쌍방향플랫폼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제한적이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교수자는 다양한 과제물을 학습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과별 과제의 증가로 학습자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온라인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이동주·Misook Kim, 2020). 넷째, 올해 초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라 서버 과부하에 따른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 등은 학습자의 학습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새로운 매체의 활용은 초기에는 학습자의 흥미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도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매체 활용의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Kanda et al., 2004).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습자의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과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가 개인별 학습 성과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에 따른 수업 결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손찬희·강상국·하성준, 2016)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현 상황에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 역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원격수업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한 원격수업의 현장 적용, 교원의 ICT 활용 역량 강화, 자발적 커뮤니티를 통한 전문성 신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대면 및 온라인 교육이 자발적이지 않은 학습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니며, 미비한 인프라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정보 소외 계층의 학습 기회 불평등의 문제로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김상미, 2020; 오재호, 2020).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 서비스는 학습 격차를 키우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보편화되는 시대에서 제대로 된 대응력을 갖춘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온라인 학습 및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강성리·허계형·Jane J. Lee, 2020)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근배(2020)는 코로나19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평생교육 기관 전반에서 장애인 학습자의 접근성에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부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 접속과 사용, 필수적인 장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장애인가가구가 있으며, 물리적인 장비 이외 부모나 가족이 아닌 필요한 인력이 방문하여 충분히 학습을 돕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활용 가능한 자료가 충분히 개발, 축적되지 못한 상황은 사실상 교육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장애인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학습 수행을 위한 별도 인력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도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를 만나다



코로나19, 온라인 개학현장의 기록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를 만나다

1. 내가 만난 아이와 엄마

자신의 위치에서 아이와 최선을 다해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어머니 5명을 만났다. 그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나와 쌍둥이가 겪은 일들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경험을 이곳에 모았다.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 경험한 내용임을 기억하고자 아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이름은 가명이고, 특정 지역과 학교는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아이들 소개는 어머니가 직접 적어주신 내용이다).

채송화(14세)



송화는 지금 사춘기 소녀입니다.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고 웃고, 잘 빠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기 싫다며 고집도 엄청 부립니다.

집에서 TV만 보려고 하는 송화에게 좋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입도 벌어지지 않아 먹기 힘들고, 아치가 많이 무너져 걷기 힘들지만, 송화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0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송화는 올해 중학생이 되어 특수학교로 진학했다.

안정원(11세)



천천히 크고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늘 함께하고 싶어 하는 열한 살 정원이입니다.

정원이네는 맞벌이 가정이다. 자폐성장애가 있는 정원은 일반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부모 대신에 형이 온라인 수업을 챙겨주었다고 한다. 2020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정원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작년 한 해 정원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다행이 올해 대면수업을 하게 되면서 정원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한다.

장겨울(17세)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겨울이.

친구를 제일 좋아하고 선생님들을 제일 좋아하며 잔소리 제일 싫어하는 평범한 아이.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겨울이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다. 그리고 비장애형제자매로 쌍둥이 동생이 있다. 겨울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혼자서도 잘 있어서 어머니가 많이 안쓰러워하셨다. 그렇게 가만히 두면 종일 스마트폰 보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세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한다. 고등학교 까지 일반학교로 보내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님에도, 어머니는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통합학교를 선택하셨고,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2020년 중학교 3학년인 겨울이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다.

김준완(16세)



저는 자폐성 장애가 있으며, 언어소통은 잘 되지 않지만, 친구들을 좋아해서 통합학교에 진학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친구들을 당황하게도 하는데, 친구들은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잘 알아 다행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어서 좀 속상해요. 빨리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같이 웃고 싶어요.

준완이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다. 대면수업이 안 되면 자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는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어머니와 준완이의 2020년 생존기는 눈물겨웠다.

이우주(19세)



우주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우주 어머니께서는 대면이 안 되면 아이와 선생님의 1:1 비대면 수업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엄마 말보다는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서 선생님께 우주에게 전화라도 해서 아이가 학교를 잠시라도 가게 하거나,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신다고 한다.

현재 우주는 축구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체력 단련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2. 온라인 교육 경험을 말하다

울산과 서울, 인천을 다니며 5명의 어머니를 만났다. 아이들 가까이에서 함께 겪었던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교육 경험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함께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갔고, 그해 4월 16일 온라인 개학 이후 자녀들의 온라인 교육의 경험을 떠올렸다.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 공백은 해소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향후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인터뷰 약속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만나도 된다고 안내드렸으나 잠시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온 어머니도 있었다. 또 한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나오셨는데, 인터뷰 내내 함께 온 자녀가 “그만해”, “사랑해”, “떡볶이”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자녀와 상호작용하셨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붙어 지냈겠구나’ 생각하니 어머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다 와 닿았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모자 사이에서 아이가 하기 싫어 하는 것을 잠시라도 시키려고 실랑이 하다, 아이가 짜증이라도 폭발하면 또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을 모습이 그려졌다. 아래는 어머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수업 진행 방식은 대부분 학습꾸러미

학습꾸러미란 ‘학교에서 가정으로’ 수업 대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지와 준비물을 함께 제공하는 일련의 학습자료 형태를 지칭한다.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학습지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원격 수업 유형 중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기타(교육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 과제 수행 중심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유형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흔히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하면, 쌍방향 줌 수업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비장애인 학생에게 해당하는 방법이다.

내가 만난 5명의 어머니는 대부분 특수학급의 온라인 수업은 학습꾸러미로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준완이 어머니는 독특하게도 중학교에서 통합학급(예: 1학년 1반) 온라인 영상을 다 들어야 출석을 인정해 주는 내부 규정 때문에 통합학급 온라인 영상을 어머니가 보고, 준완이가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라 힘들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특수학급에서 배부하는 꾸러미도 따로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학습꾸러미 내용 중 종종 EBS 영상 보기, 유튜브 링크 보기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학습꾸러미조차 자녀의 개별 수준에 맞춰진 적절한 꾸러미는 아니었기에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학습꾸러미 역시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모의 지원이 필요했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주말에 몰아서 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온라인 학습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학습꾸러미로 과연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해소되기에 충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우주 엄마

“우리는 등교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종일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나눠준 꾸러미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봤자 선생님이 이제 골라서 ‘요 정도는 하겠지’ 하는 그런 거를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내주면, ‘퀴즈 내기’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퀴즈 몇 개, 문제 몇 가지 내는 걸 답으로 적는 거, 그게 다였어요.”

준완이 엄마

“꾸러미는 꾸러미대로 있어요. 꾸러미는 꾸러미대로 받아와야 하고. 왜냐면 아이가 내려가는 시간이(특수학급에 가는 시간을 뜻함) 있잖아요. 쉽게 말해 내려가는 시간. 내려간다는 과목에 하루에 2교시, 전체 몇 교시, 일주일에 몇 교시 있어요. 거기에 할당되는 걸 줘요.

준완이는 글씨 쓰지요. 가, 나, 다, 라 / 나비, 비행기,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는 책자를 줘요. 집에서 쓰라고 하면 따라는 그리는데, 막 한 페이지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서 해 놓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러면, 저는 조금만, 한 장만 더 해보자. 한 줄만 더 써보자 해도 ‘그만 해, 그만 해!’ 그러죠.”

겨울이 엄마

“특수교사가 이클래스 같은 걸 만들어줬어요. 초등 1~2학년 수준의 EBS 방송에 나오는 영상이더라고요. 특수교사가 이클래스에 도움반 영상을 올려 줬는데, 교사가 교사 얼굴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겨울이랑 하나(친구) 수준에 맞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영상을 띄워주고, EBS초등 1학년 문제집 같은 걸 보내고 했었어요. 그거를 저랑 하긴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다 내 숙제이고, 게다가 흥미도 없고 하니까.”

(중 수업은 진행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도움반도 그렇고, 원반도 그렇고. 학습꾸러미, 영상 보는 것만 했어요.”

정원이 엄마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중 수업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꾸러미로 대체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둘째 주인가 그때부터는 주 2회 3주. 총 6번 중 수업 해봤어요.”

(나머지는 꾸러미로 하셨단 거죠?)

“아이들 개별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저학년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꾸러미를 한 거죠. 1학년 아이들하고 3학년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 하기에는, 다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죠. 차라리 그럴 거면 학생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다르게 아이들을 좀 만났으면 하는 거죠. 1시간이라도.”

(꾸러미를 평일에 했어요?)

“꾸러미를 주말에 엄마랑 같이, 한 번에 몰아서 했어요.”

송화 엄마

“작년에 그 특수교사는 아이들의 특성과 교육 수준을 전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는 교구가 다 송화가 하기 힘들고, 그냥 그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사서 그 교사는 단순히 꾸리는 건데요, 저 그거 이사 올 때 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고 왔어요. 이만큼을 줬는데 다 송화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학교에서 많이 보내주셨나 봐요?)

“제게는 되게 괜찮은 교재가 있어요. 차라리 맨날 이상한 교재를 보느니 그거를 사다 달라. 그거를 사주면 내가 집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시리즈로 해서 완벽하게 다 풀어서 했거든요. 그거 하나 빼고는 만족할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수업 자체도 처음에는 뭐 방학 때 뭐 하고 싶어요? 그런 일상적인 얘기는 송화가 참여 가능한데 나머지는 거의 뭐 4.19 이런 거 얘기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죠.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좀 일찍 나갔다가 그다음에는 들어갔다가 바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최송화, 출석합니다.” 게시글에 출석만 하고 그냥 끝났어요.”

3. 통합학급 수업을 말하다

일반학교의 경우 대개 특수학급, 통합학급(예: 1학년 1반)에서 수업이 진행된다(통합학급에서만 수업하는 완전통합 학생도 있다). 등교하는 경우 통합학급 교실에 있다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갔다가 다시 통합학급에 오는 형태로 수업에 참여한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한 통합학급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어머니들은 통합학급 온라인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리고 처음에 1교시 정도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줌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분이 계셨다.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급 수업은 학습꾸러미 위주였다면, 통합학급 수업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일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 온라인 수업에 고민이 전혀 없었던 부분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준완이의 학교처럼 장애학생도 통합학급 온라인 수업을 다 참여하도록 한 학교도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영상 보기와 과제 제출을 하게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출석체크를 위해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영상을 봐야 했고, 그것은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준완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다. 학교 가는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단 특수학급 수업은 꾸러미인데 원반수업 진행은 어떻게 했나요?)

정원이 엄마

“원반수업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와도 된다고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와서 인사만 하고 나가라 하시죠. 근데 이제 딱 1시간만 들어요. 1시간만 듣고 나왔지. 왜냐면 애가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럼 원반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원반수업은 이제 형이, 근데 형은 마침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형이 옆에서. 어쩔거나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업 내용은 정원이가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정원이가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원반수업은 우리 애들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어른이 들어도 어려운데 우리 애들이 듣기엔 너무 어려운 거지.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강의 듣듯이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냥 6학년 원반수업은 그렇게 계속 줌으로 하는데 송화는 처음에 시도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특수학급 수업은?)

송화 엄마

“특수학급은 아예 줌 수업이 없었고요, 그냥 온라인 수업만 있었는데 그것도 뭐, 네이버 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한글수업 뭐 그런 거, 송화는 보지도 않는데 그런 거 잔뜩 올라왔는데 그걸 누가 봐요?”

(그걸 밴드 같은 데 올려놓고 보라고 한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보죠. 그거 본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자기도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고, 그런 것만 올리니까 한 시간씩 오라. 그게 다른 학교에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원반수업인데 그것도 준완이는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준완이 엄마

“작년 4월 원격수업으로 개학했잖아요. 그게 다 알리미로 왔어요. 1교시 땡, 2교시 땡, 3교시 땡땡땡 다 알리미가 왔어요. 알림을 열어서 읽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났는데도 읽지 않으면, 읽지 않은 알리미가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 와요. 또 알리미가 추가로 땡땡땡. 제출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제출 안 했으면 담당 교사 선생님이 문자를 해서 ‘업로드하세요’, ‘과제 제출하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죽겠는 거죠. 난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다시 문자를 하거나.

준완이는 무슨 이렇게 역삼각형 같은 건데 찌그러진 무슨 네모가, 이게 가방이래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려 오래요. 그래서 사진 찍고, 설명을 넣어서 업로드하래요. 그래서 미술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완이는 이게 이 찌그러진 네모가 가방인지도 모르고, 이 가방에 대한 ‘준완아, 이게 가방이래’라고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두 달 걸려요. 그래서 못 한다. 그러면 아무 거라도 그려서 보내줘야지, 안 그러면 점수를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마세요. 빵 점 줘도 돼요. 준완이는 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과제를 해서 100점 맞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해

서 보내래. 그래서 “준완아, 너 해서 보내래. 그리고 싶은 거 그려 봐” 했더니,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지 얼굴 그려서 짹짹 그려서 보냈어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계속 개별반 선생님(통합학급),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선생님, 지나다 마주치면 붙잡고 힘들다, 힘들다. 준완이 차라리 온라인 수업에서 다 그냥 빼 주시라. 그러면 내가 매일 준완이 교복 입혀서 학교 개별반에(통합학급) 가든, 교장실로 오르면 교장실로 가든 애 이름 세 글자 출석체크하고 가게끔 하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학교에 가서 짹고 오겠다. 애는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스마트폰을 보고, 뭔가 이상한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게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죠.”

(처음에 아예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뭘 했나요?)

겨울이 엄마

자가진단하고, 이클래스에 출석 등록하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학습꾸러미, 동영상 보고, EBS문제집 푸는 건 특수반 수업이고, 본 반(통합학급) 것은 출석만 하고 들어갈 생각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애초에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 본 반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는 아예 배제가 된 거죠. 자기네들도 아무 틀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비장애애들 담임선생님은 그거 챙기기도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냥….

4.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말하다

온라인 수업으로 자녀의 상동행동⁵⁾, 스트레스 증가로 오는 행동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다. 작년 코로나 초기에는 학교, 복지관 등 기관의 휴관으로 자체 감금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하던 것을 못 하게 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컸던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작년 9월 28일~10월 5일 진행한 코로나 기간 장애학생 긴급돌봄 이용 및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환경에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사회활동 경험이 차단되고, 집안에서만 생활함에 따라 무기력, 체중 증가, 퇴행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그동안의 생활습관이 무너져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학생일 때 학교를 안 가면 좋아하고, 직장 생활하는 지금도 대체공휴일로 일을 안 가면 좋아하기 마련인데, 장애학생으로서는 학교를 가고,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는 일상이 멈춰버린 이유를 알지 못하니 많이 답답했을 것이다(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 쌍둥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부모가 지켜 본 온라인 수업은 자녀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아닌 무의미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고, 이것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친구를 만나지 못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점과 특수학급 수업 외 교과를 하지 않으면서 학습적으로 퇴화되는 것을 안쓰러워 하셨다.

5) 행동 양식이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가운데 목적이나 기능이 확실하지 않은 행동. 장기간의 욕구 불만이나 이상 행동에 의해서 유래된다.(다음, 어학사전)

인터뷰 내용 중 기억에 남은 것은 송화의 사례이다. 송화의 경우 작년에는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올해는 중학교를 특수학교로 진학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중이다. 하루 1시간은 줌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그 1시간 줌 수업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힘든 과정이지만, 송화의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수업이기에 그것으로 만족하신다고 한다.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배제 정서가 만연한 가운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우는가?’, ‘질적으로 만족스러운가?’, ‘아이가 즐거워하는가?’ 이런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서 줌으로 해도, 시간이 짧아도 만족스러워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다.

온라인 수업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집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집은 쉬는 공간이며, 엄마는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이라는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일단 특수학급 수업은 꾸러미인데 원반수업 진행은 어떻게 했나요?)

정원이 엄마

“작년을 돌아보고, 지금은 살펴봤을 때 아이의 상동행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면 학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어찌됐든 가서 부딪히고 아이가 적응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니까, 수치적으로 발달장애 아이들과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전체 다 봤을 때, 밖에 나가지 못해 갇힌 것과 사람을 못 만나 오는 스트레스를 보면 애든 어른이든 갇혀 있는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비장애도 그랬는데 장애아동은 더더욱 더 그랬겠죠.”

송화 엄마

“어차피 집이라는 환경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왜냐하면 치료실도 아니고, 내가 선생님도 아닌데 송화한테 그거를 막 강제로 하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잡거나 꼬집거나 똑바로 앉으라고 계속 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저께는 옆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수고 많으셨다고, ‘오늘도 선생님이 너희들만 수업한 거 아니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시간 맞춰서 애를 앉혀 가지고, 뒷도리는 또 다른 걸로 갈아입히고, 얼굴 이렇게 하고, 여기 앉혀가지고 그 30분 동안 애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언어 지시하고 해야 되잖아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같이 느껴져요. 간신히 끝내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계속 그냥 TV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뭐 애한테 맞는 거를 제공해서 그나마 불만이 없는 거지, 애한테 맞지도 않는 거를 하라고 하면 더 진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서, 거기서 송화는 요, 글씨는 아니까, 그것만 해야겠구나, 그것까지 생각 해서 하면 더 열받죠. 무의미한데 애한테 자꾸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 엄마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외에는, 그 외에 교과목이나 학습시간에 대해서 아이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게 계속 이제 퇴보하는 거죠. 사회적응도 퇴보하는 거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퇴보하는 거고 그리고 엄마하고도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거지.

다른 애는 안 하는데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애들 공부하는 게 자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 이제 엄마는 자꾸 잔소리만 해대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안 보려고 안 부딪히려고 학교 가자고 했어요. 근데 안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계속 부탁할 수밖에 없지, 선생님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애가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선생님이 ‘너 학교 와야 해!’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말은 그나마 또 들으니까. 선생님한테 계속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

가을이 엄마

“보호자로서, 항상 데리고 있는 건 괜찮은데, 아이가 불쌍하죠. 딱히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불쌍했죠. 복지관도 작년에는 많이 문 닫아서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완이 엄마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오전에 갔다 오고 2시간, 3시간 갔다 오는 수업은 있었죠.”

(그러면 개별반 수업을, 특수반 수업을 갔다 오신 거예요?)

“온라인 친구들이 할 때 애는 학교에 가서 특수학급에서 그거. 나비비행기 그거를 쓰고 나랑 하는 거보다 선생님이랑 싸야지 글을 더 예쁘게 잘 쓰니까. 애는 엄마랑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집은 뒹굴뒹굴 노는 곳이고, 엄마랑은 노는 사람인데 왜 엄마가 자꾸 나한테 연필을 잡게 하고 글을 쓰게 하지? 이해를 못 하죠. 애가 짜증이 늘어나고 학교를 뭔가 아침에 부산스럽게 일어나서 씻고 정해진 옷을 챙겨 입고 나가야 하는데, 친구들 있는 곳으로, 선생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있으니 애도 이제 완전히 패턴이 뒤바뀌었잖아요. 특히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이게 뒤바뀌면 난리가 나잖아. 애도 뒤집어졌어. 정말 최고의 사춘기의 절정에다가 코로나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암전하네요?)

“그래서 내가 ‘자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자퇴가 낫겠다.”

(학교에서 하라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자퇴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집에서는 학습이 안 되고, 학교에서는 해야지 출석이 인정되는데,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준원제도 거부하고 나도 힘들고 자퇴를 하게 되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과제 안 해도 되고, 다시 내가 어르고 달래서 정리를 좀, 이렇게 패턴 정리를 좀 시켜놓을 수가 있잖아, 그게 빠지면. 그래서 자퇴를 해야 되나, 유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다행히 등교 수업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등교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애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뭐 3분의 1 등교할 때가 있고 3분의 2 등교할 때가 있었어요. 애는 3분의 1 등교할 때

2주는 쉬게 되니까 그때랑 2주를 갔다가 1주를 쉴 때랑 확실히 또 달라요. 학교 갈 때 더 차분해지고, 내 환경에 수공을 하고, 선생님이 뭐 학습지도에 대한 것도 잘 수공하고, 잘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거 보라. 1주일이 다르고 2주일이 다른 게 선생님눈에도 보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있으라고 이러냐. 처음에 집에 있다가 첫 등교 일주일 했을 때 선생님 애 아시지 않느냐. 이런 준완이 처음 봤어요. 선생님마다 준완이 요즘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했길래? 준완이가 어떻게 했길래?)

“와아악, 소리 지르고 힘을 쓰면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빨개지면서 땀이 짹 분출되면서...”

(집에서 그런 상황들이 스트레스였던 걸까요?)

“스트레스이고 지가 또, 그렇게 하면서 외출을 자주 하거나 내가 환기를 해주거나 그럴 수도 없었고,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뜨거운데 날 더운데 공원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텃밭을 하는데 처음에는 텃밭에 데리고 가서 상추 한 잎씩 뜯게 했어요. 근데 매일 가니까 상추가 자랄 틈이 없이 뜯는 거죠. 뜯다가 없어지니까 목을 꺾더라고요. 지금은 ‘응, 응’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나가자고, 좀 기다려줘 이러면 ‘와악’ 하고 방에 들어갔다 혼자 마음이 급하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려고 어디 공간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들도, 애 친구 엄마들도 어릴 때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고 같이 놀러다니고 하던 사람인데도 준완이 왜 그러냐는 소리를 꽤나 많이 했었으니까. 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다 그랬으니까.”

5. 적합한 교육지원 방법을 말하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는 2021년 매일 등교가 발표되고 난 후, 작년보다는 ‘그나마 나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나마 나은’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를 아예 못 가던 시기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여전히 수도권은 매일 학교를 못가고 있고, 여전히 비장애학생은 매일 등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도 특수학급 중심의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원격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호소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공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적합한 교육지원에 관해 묻는 질문에서는 어머니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현재 가정에서 진행되는 형태의 일방적인 학습꾸러미 등 과제 해결 중심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했다.

정원이 엄마

“콘텐츠는 보조 수업의 자료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부딪혀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적응해야 하고, 그렇게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은 체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지, 뭐 공부를 해서 그런 거를 채우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체험, 적응이 중요한 거니까.”

(가을이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른 곳을 보면, 재난시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별도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영국은 다 안 나오니까, 장애학생은 학교로 나오게 해서 교사는 줌으로 해도, 지원인력은 학교에 있는 거예요. 애들 수업은 거기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을이 엄마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어차피 4단계면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력 문제이고, 예산문제이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나아가려면 우리 엄마들이 뚝뚝 뭉쳐서 나가야겠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아지고, 올해보단 내년이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은 조금씩 있다는 거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음 나아지진 않겠죠. 계속 이야기하고 방안을 찾아야죠.”

우주 엄마

“이제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1시간 동안 이 아이가 오늘의 할 일,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매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어떤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못 해주실 거잖아요. 교과도 그렇고 도움반 애들만 해도 7명이니까, 고등학생도. 또 다 같이 실시간 비대면을 하기는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롯이 내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교과수업이 아니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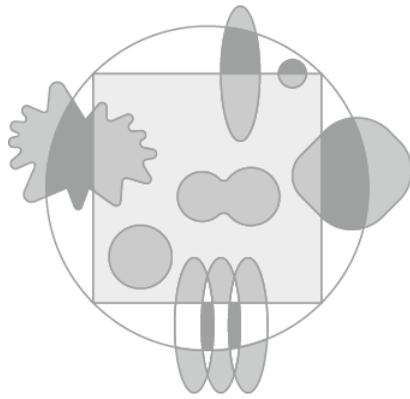
그래야 그날 생활의 활기가 돼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서 엄마가 지원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그냥 전화로. 전화는 해요, 선생님님. ‘우주야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네’ 하고 끊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화로 하는 거랑 비대면이라도 얼굴을 보는 거하고 다르고,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하는 게 다르듯이,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르듯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원탁토론회를 간 적이 있는데 비장애아이 엄마들은 뭘 요구했냐 하면 아침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들이 다 깨우기가 힘들어 지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학원을 10시까지 다니잖아요. 11시, 12시까지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담임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침마다 모닝콜해 주세요.’ 비장애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신경을 써 주세요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바라는 점이지.”

준완이 엄마

감옥살이 아닌 자체 자가격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집에 있어요, 자체 자가격리.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의 대상이 성인이잖아요. 지금은 20~30대 층이 늘어나고 그게 다 어떤 대중시설에서, 대중음식점에서,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섣다운을 하지 않으면서 애먼 학교를

셋다운시키는지. 거기를 셋다운을 다 시키고 학교는 가야죠. 학교가 가장 안전한데 지금껏 학교에서 감염됐다고 하는 사례보다 그게 훨씬 많잖아요. 지금 다른 시설에서, 다른 사회에서 감염된 게 훨씬 많고 거기서 감염된 부모들이 학생한테 확진을 시켜서 학교에 간 경우는 있으나 학교에서 확진이 돌았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회를 셋다운시키고 학교를 열었으면 좋겠어, 나는. 학교 셋다운하지 마세요.

온라인교육,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



코로나19, 온라인 개학현장의 기록

온라인교육,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

어머니 5명을 만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답답함을 느꼈다. 코로나 시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한 온라인 개학은 사실상 그 안에서 장애학생이라는 구성원을 위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어머니들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애학생들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온라인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육 방법이었나?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온라인 교육은 장애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진행된 차별적 조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틀렸다.”, “대면 등교가 정답이다.” 이것이 규정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1. 맺음말_온라인 교육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

어머니들과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계획상 전문가 자문을 남겨 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를 고민하면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광백 사무국장을 만났다.

답답한 지금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에 공감 받고, 대안을 찾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온라인 교육은 잘못됐다.” 이것을 전제로 계속 질문하는 나에게 김광백 국장은 장애학생의 지위 문제를 말했다. 장애학생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말인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 다수에 비해 소수, 보잘 것 없고 중요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기 앞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교육 받았다. 통합학급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 왔다.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 통합학급 온라인 수업도 장애학생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장애학생의 지위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이 가슴에 콕 꽂혔다.

조경미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다시 올지도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작년 부터 진행된 온라인 교육 안에는 장애학생을 구성원으로 고려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하면 다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됐다. 나는 교육 차별이 심하게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지원 역시

인력지원 부분은 적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만 투자하고 있다. 부모들 역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역시 특수학급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통합교육까지는 달지 않을 것 같다. 통합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김광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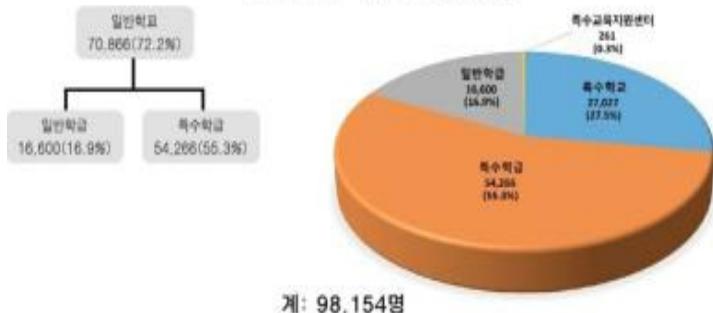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때까지 대우 받아온 장애학생 지위의 문제라고 본다. 장애학생의 지위가 코로나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학생이 누구의 소속이어야 하느냐? ... 이런 것들이 학생의 교육권 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도, 관료도 교사들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일반교육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만만치 않고 뚫어내기 힘든 거죠.

2. 미미한 존재에서 중요한 존재로!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특수교육법 제2조1). 우리나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이 있다.

2021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학생 9만 8,154명 중 72%인 7만 866명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육기관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표 2·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7,027 (27.5%)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261 (0.3%)	98,154 (100)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 기회 측면에서는 특수교육 수혜율이 2020년 기준 75.1%이다(특수교육 수혜율은 특수교육대상자 수/추정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1999년 29.2%에 비하면 교육 기회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장애부모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이뤄져 왔다. 그에 따라 그동안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등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란 큰 성과가 있었다.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특수학급 6,352학급(2008년) → 11,661학급(2020년)
- 특수학교 149개교(2008년) → 182개교(2020년)
- 특수교육교원 확충: 13,165명(2008년) → 22,145명(2020년)

하지만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장애학생 개인마다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가?’, ‘또래와 함께 차별 없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항상 현장의 변화 요구가 존재해 왔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형식적인 통합교육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14)

45. 본 위원회는 장애 통합교육정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교에서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데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더욱이 정규학교에 등록된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장애와 관련된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46.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현행 장애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
- (b) 보조공학, 교실 내의 지원시설 설치, 접근이 가능하고 용도에 맞게 개조한 교육보조자료 및 교육과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환경 등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및 기타 학습기관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 (c) 일반학교의 교사 및 관리자 등 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 6차 심의진행(2019. 9. 18.)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풀지 못한 ‘통합교육’이란 숙제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현장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애학생의 소속은 어디인가?’, ‘장애학생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누구와 배울 것인가?’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장애학생은 특수학급 소속이며, 그곳에서만 국어, 수학 위주의 학습을 개별적 특성에 맞게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교육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상황과는 무관하게 2021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1) 학사 및 학습지원

- (전면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에서 2.5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추진하여 특수학교는 100%, 특수학급은 98.3%의 학교가 등교 수업 실천(6.15. 기준)

- (지원 인력) 특수학급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원(259명)과 예비특수교사(31개 대학 579명) 등 추가 배치
- (통합교육) 특수학급 등교 수업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 우수사례(16개) 발굴·안내(1학기)
- (정서·행동 지원)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 지정·운영(5곳)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특수교사 150명),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학생 600명) 추진(1학기)
- (미래교육) 장애유형별 웹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플랫폼과 가상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학생, 학부모용 80여 종) 등을 개발 추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 시기 장애학생 교육지원 현황에서 매일 등교 현황 내용 중 특수학교 100% 등교, 특수학급 98%의 수치이다. 이 수치가 참 웃기면서도 슬프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현황의 성과만 강조한 기록으로 보인다. 학교 입장에서는 매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매일 학교에 학생들이 온 것이겠지만, 개별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전면 등교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 특수학급 위주의 반쪽짜리 매일 등교를 했을 테고, 지역별 격차도 존재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이 매일 등교 98%란 수치로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일까? 현장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장애학생을 둘러싼 교육의 질적 문제와 형식적인 통합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온라인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한 '장애학생의 지위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란 질문 앞에 섰다. 장애자녀의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모는 더 어려운 속제 앞에 다들 고개를 내저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특수학교로 옮겨야 하나?'를 고민한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지금 선택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부모, 교사, 관리자 모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 시기 온라인 교육이 학생들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장애학생마다 장애 정도가 다르고, 개별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라인 교육 대응 매뉴얼에는 장애 정도와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없었다.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장애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될 때까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신의 안락을 위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차별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멈추면 안 된다.

에필로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온라인 교육은 나를 비롯한 많은 부모에게 큰 좌절감을 주었다. 교육부 슬로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가슴 벅찬 수식 뒤에 가려지고 감춰진 존재,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인간처럼 취급 받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좌절감도 겪었다. “우리는 있어도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분노가 뒤섞인 상태에서 ‘활력향연 연구 모집글’을 보았다. 정신없이 계획서를 써서 제출했던 그때의 나를 찾아가서 “그때 왜 그랬니?”라고 묻고 싶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가 싶기도 하고, 처음 당찬 나의 포부는 어디 갔는지. 아이들 챙기랴, 사무실 업무하랴, 연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마감일은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매일같이 후회를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활력향연’이라는 나름의 이유가 생김에 따라 도서관에 가고, 혼자 책도 읽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무실과 집 업무가 아닌 다른 제3의 이유로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물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글을 마무리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결론을 내는 글이 아니라 어머니들을 만나고, 그 내용을 담는 데 충실하고자 했다.

끝으로 나와 인터뷰 시간을 내어준 어머니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이들 시간이 혼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상상하면서, 함께 바꿔 나가 봅시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나의 동지들이여!

참고문헌

- 김대용·최진혁,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2020): 85-108쪽.
- 오재호,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2020): 1-25쪽.
- 김상미,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6(2020): 1091-1100쪽.
- 전근배, 「국가의 거리: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2020): 173-207쪽.
- 권순정,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과제: 재조명되는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학교의 역할」, 서울교육 이슈페이퍼(2020): 26(2), 1-14쪽.
- 안희정, 「코로나 19, 교육불평등의 현주소」, 민들레 134호. 2021. 3-5쪽, 70-79쪽.
- 정용주, 「‘포스트’가 아닌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육, 오늘의 교육 57호. 2020. 7-8쪽,14-55쪽.
- 국립특수교육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 2021.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1.
- 이용상,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3.4(2020): 39-57쪽.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퍼범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